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신용식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오세광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황 광 목사	하인선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부름 Call to Worship

시33:20-2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1(나리사랑 3)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580(371)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21:8-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헌 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박노철 목사

(God's Answer to the Little Moan)

* 찬 송 Hymn

샘 222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29:11

인 도 자

찬 송

88(88) / 354(394)

다 합 께

기 도

김재근 집사

찬 송

샘 109 / 샘 59

다 합 께

성 경

고전 3:9-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부흥의 원칙” 설 교 자

* 찬 송

210(245)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 부: 배옥선 권사 II 부: 홍건표 권사

성 경

마 10:2-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순전한 마음의 제자 바들로매”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 유문건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모 임

1. 여전도회 헌신예배 찬양연습(임역원) / 3일(주) 오후3시30분 502호

2. 이미용 봉사(봉천동 노인복지관, 정신건강 센터) / 5일(화) 오전9시 101호

3. 13교구 연합다락방 / 8일(금) 오전11시 501호

4. 15교구 연합다락방 / 8일(금) 오전11시 602호

5. 제2기 꿈나무영어성품스쿨 개강예배 / 9일(토) 오전10시 701호

6. 전 도 / 3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치삼성, 도곡레이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6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마리아 전도회(607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스데반회(한티공원)

7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마도, 대치현대, 역삼역가, 국제, 개포주공6,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8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9일(토) 오후 2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바울 선교회(한티공원)

알 림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갈반홀)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4. 2013년도 농어촌100교회, Vision 2020운동, 한가정한선교사 후원 접수 / 2013년도 농어촌100교회, Vision 2020 운동, 한가정 한 선교사 후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교회를 돕고 군 복무자를 전도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소: 302-306호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6.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뒷면으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양택	14교구	이삭	인내팀	김다은	12교구	청년2부	본인	김형석	13교구	청년1부	본인
홍경화	1교구	마리아	이영희	성주현	16교구	청년1부	본인	김성민	16교구	청년1부	인내팀
현미순	16교구	루디아	이은희	김진주	11교구	청년1부	본인	이슬기	13교구	청년1부	본인
김기훈	16교구	루디아	인내팀	정성우	5교구	청년1부	본인	조상혁	16교구	청년1부	본인
오진아	11교구	루디아	최향봉	신지혜	13교구	청년1부	본인	임하은	16교구	청년1부	화평팀
김이세	13교구	청년1부	본인	이아령	16교구	청년1부	한재희	박준형	교육 1국	초등부	인내팀
김대형	1-20	청년2부	강요혜	김소영	11교구	청년1부	김소영	장성우		초등부	최향봉
엄창호	7-4	청년2부	김은정	오상협	13교구	청년1부	본인	장세일		초등부	이은희
권중혁	11교구	청년2부	화평팀	정소리	16교구	청년1부	본인	노우진		유치부	본인
김영훈	16교구	청년2부	본인	천지우	16교구	청년1부	본인	강현준		유치부	본인
김봉현	12교구	청년2부	본인	추교빈	15교구	청년1부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7. 의료 상담 / 하인선(신경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0-3688-9123

장 레

1.故 이정희 성도(12교구 최순례 성도 모친, 박종식 집사 장모) / 2월25일(월) 별세, 2월27일(수) 발인

2.故 이기배 성도(3교구 이정수 집사 부친, 최경분 집사 시부) / 2월26일(화) 별세, 2월28일(목) 발인

희망의 창문을 열어라

회의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삶이란 불행의 연속이라 한다.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오는 불만과 충족되었을 때 오는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처럼 비관주의 적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다.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가진 자들, 늘어난 가는 외채, 비교육적 교육 현실, 정도를 이탈한 종교인들 모두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요 절망스런 것들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살 만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보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엔 오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좌절보다는 창문을 열고 희망의 빛을 보고 일어서야 할 때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